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MS&AD홀딩스, 라오스 보험시장 진출

- 올해 4월 미츠이스미토모해상 · 아이오이손보 · 닛세이도와손보가 통합해 생긴 MS&AD인슈어런스그룹홀딩스(이하 MS&AD홀딩스)는 최근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라오스에 지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보험사업을 시작함.
 - 라오스 손해보험업계는 개방화 정책이 시행된 2007년까지 유럽과 라오스 정부의 합작 1사 체제가 지속되어 왔으며, 이번 MS&AD 홀딩스의 지사 설립으로 라오스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한 회사는 총 5개사로 늘어남.
 - MS&AD홀딩스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라오스 손해보험시장에서 5년 내 30%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아우르는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.
- MS&AD홀딩스는 태국 화물보험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는 등 외국계 보험회사로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으나, 지나친 정부 규제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은 진출 확대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.
 - MS&AD홀딩스는 1964년 태국 보험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현재 손해보험업계 5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화물보험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로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.
 -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이 성장성은 높으나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반정부 시위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MS&AD홀딩스는 우선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및 건설 관련 기업성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짐.
 - 이와 관련해 MS&AD홀딩스는 해외사업 부문의 이익을 올해(FY2009) 120억엔에서 FY2013년 300억엔으로 그룹 전체 이익의 1/5 수준 규모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5/5)